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 불교특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종은영 741-04-365950(예금주: 인도특기)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글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성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남글당



잇따른 정보기증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씨가 30년간 모은 국보-보물급 유물 46건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불교계에도 문화재 기증이 잇따라 혼란을 더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학자인 조병호씨와 홍경식 교수(서울산업대). 두 사람은 최근 자신이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고려시대 금·은사경 <법랑경 보살계> 한 점과 임진왜란 전에 찍었던 <법화경> 판본 3권1질을 원래 소장처인 전북 원주 안심사에 기증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당장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씨는 단군의 묘를 자비로 지어 대전시에 기증했을 정도로 지역에선 꽤 알려진 한학자. 2년 전 서적 형태(세로 30cm, 전체 폭 1m)로 된 고려사경을 구입했던 조씨는 최근 아무 조건 없이 안심사에 이를 기증했다. 사경에 '안심사에서 전해왔다(安心寺 遺傳)'는 기록이 적혀있는 만큼 '안심사에 있던 유물은 안심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홍 교수는 애초부터 안심사에 기증할 목적으로 유물을 구입한 경우다. 평소 안심사 주지 진관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홍 교수는 서울 인사동 고서점가에 안심사에서 찍은 조선시대 <법화경> 판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500만원에 이를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안심사 복원불사를 벌이고 있는 주지 스님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진관 스님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을 사가 창건한 안심사는 사내 입자 19개를 거느린 대가람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타 지금은 사적비와 부도 등 석조물만 몇 점 남아있다"며 "원래 자리를 잃고 떠도는 성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몰라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 총무원장의 표창을 받는다.

권형진(취재)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한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 (02)737-0090 부산 : (051)632-0064 대구 : (053)768-8008 광주 전남 : (062)375-9986 전북 : (063)255-2274 대전 : (042)489-9390 충북 : (043)258-3282 강릉 : (033)643-5599 동해 삼척 : (033)521-6293 영주 : (054)634-3429 경남 동부 : (055)353-1196 제천 : (043)644-4366 경남 서부 : (055)547-3469



◇5월 4일 서울을 비롯 전국 도시에서 연등축제가 열려 불자와 온국민이 자비와 평화의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은 종로에서 펼쳐진 제등행렬. 사진=박재원 기자

“자비의 꽃등 물결 평화로 출렁”

4일 전국서 연등축제 ... 외국인 증가 '세계의 잔치'

서울 20만명 참여, 장엄물 앞세워 제등행진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연인원 20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일 동대문운동장과 조계사 앞 우정국로, 종로 거리에서 펼쳐졌다. 특히, 태국이 국가 차원에서 참가하는 등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는 외국인 참가자가 예년보다 많은 2만 여명이 달해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봉행된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11

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 사찰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4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불교 도공동발원문도 봉독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대형 장엄물, 수만 개의 연등, 오색 깃발을 앞세우고 조계사 앞까지 제등행진을 벌이며 서울의 밤을 '평화와 자비'로 수놓았다.

연등법회에 앞서 낮 12시부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거리 문화축제에서는 불교단체들의 사물 사경, 연꽃 전시, 외국인 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연등축제가 열려 불자와 시민들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발원했다.

연등축제 회보 12·13면
한명우 기자 rmwhan@buddhapia.com

노대통령 축하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조운제 청와대불자회 회장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진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마음은 진리의 원천”

법전 조계종 중정 범어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8일 “마음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마음에서 만유(萬有)가 비롯되어 우주법계를 이루었으니, 해탈로 나아가는 길도 마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봉축범어를 발표했다.

범어전문 14면
한명우 기자

현교·범하 스님

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은 4월 25일 조계종 기획실장 현교 스님을 신설된 문화재청도분과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에 있던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은 연임시켰다고 발표했다.

권형진 기자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 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꽃 꽃꽂이 으뜸-
(동국대 전통꽃꽂이 동아리 전수지, 박희정, 박정) 011-541-7769

조계종 멸빈자사면 종회가 '제동'

제적 이하 49명 8일 사면 ... 법전 중정 인준

멸빈자를 포함하는 조계종 대사면이 불발로 끝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 158회 임시총회를 열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중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은 총무원이 상정한 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

다. 중정 법전스님은 2일 제적 이하 징계자들의 사면을 인준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인 8일을 기해 사면이 단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및 사면지 명단 2면
중헌개정안을 놓고 무기명비밀투표에 들어간 종회는 총 투표수 72표 중 찬성 41표, 반대 30표, 무

효 1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헌 개정을 위해서는 중회 제적인원 81명 중 3분의2(54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종회는 제적 이하 징계자 49명의 사면부결 및 경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종회는 또 승려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명우 기자

봉축특집 40면 발행

주제: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세계평화와 국가의 안녕, 개인의 행복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추구되어야 할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쟁과 질병,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은 그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어서 이 세상이 곧 불국정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는 명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평화의 가르침 3-4면 인류 평화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법륜 스님과 박이문 교수의 대담으로 듣고, 화정의 정신으로 지구촌 평화 만들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섭수의 가르침 5-6면 삶의 현장에서 섭수의 가르침을 온 몸 바쳐 실천하는 참여불교의 현장을 점검하고 '돌 아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 복지, 자원봉사 현장을 살펴봅니다.

참회의 가르침 7-8면 참회의 삶을 통해 참 불자로 거듭나는 길을 제시하고 인류 행복의 최 소단위인 가정의 화목이 효도에서 비롯되는 도리를 함께 인식합니다.

한국불교의 화두 9-10면 과연 한국불교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과연 불교다운가?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의 포교 40년을 맞아 세계화의 화두를 어떻게 얼마나 풀었는지 점검했습니다. 들춰놓은 법지는 불교계의 환경응답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연등축제 화보와 뒷얘기 12-13면

각 종단 지도자 봉축범어 14면

부처님오신날 무슨 책 선물할까? 27면

다음주(421호)도 봉축특집

현대불교의 봉축특집은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제기불자 1402명의 신행의식조사	제기불자들의 신행지수를 조사했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부처님 오신날의 소망은?
부처님오신날 소망이 실현된다면	불교의 한축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은?
비구니 파워 그 힘을 활용하자	6남매 스님들의 감춰진 출가와 수행이야기.
본각 스님의 6남매 출가이야기	

'아! 큰스님'展 성료 성원 감사드립니다

본사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주관한 한국근대미술 20년의 진영 자수전시회 '아! 큰스님'전이 각종단과 문중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문화관광부·봉축위원회·핸드코리아 관계자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주문 제작: 전시작품은 만수대장작사와 후가 제작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품은 물론 개인 초상 작품도 주문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732-1520

이번주 신문(420호)은 연등축제 기사 게재를 위해 5월 6일 발송하며 다음주 신문은 10일 발송합니다.

www.dhsystem.co.kr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2003년 5월 8일 (음력. 4월 8일)

불지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민족을 드립니다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사람 납품 대표 모델 • 법흥사 • 삼운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불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진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동)
TEL: (032)822-0022-30 FAX: (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터: (032)822-0030